해남 간척지에 ‘수출용 쌀 전문생산단지’ 조성

군, 5개 기관·생산자단체·기업 협약…쌀·가공품 수출 확대 등 협력
수출용 쌀 전문단지 60ha 규모 조성…장립종 재배로 밥쌀 수급조절

해남군이 간척지를 활용한 수출용 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해남군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CJ제일제당, 옥천농협,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 등 5개 기관·생산자단체·기업과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버텍스홀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 박태선 기반조성이사, CJ제일제당 임형찬 부사장, 옥천농협 윤치영 조합장,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 윤영식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생산자 단체에서는 간척지에 전문농업단지를 조성, 장립종 쌀 RPC 설립 등을 통해 수출용 장립종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출기업에서는 전문단지에서 생산된 쌀과 가공품 등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남군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이용과 기반조성 등 각종 행정 지원을 원활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용 쌀 전문단지는 내년 관내 간척지 일대에 60ha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단계별 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에서는 매년 20만t 가량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 밥쌀의 수급조절을 위해 기존 밥쌀용 벼인 단립종 대신 전 세계 쌀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장립종을 재배하는 수출용 전문단지를 조성해 국내쌀 산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예정이다.

장립종 쌀은 쌀국수와 파스타, 향미 등으로 주로 쓰이는 인디카 품종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의 인구증가로 매년 시장 규모가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등으로 재배 가능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국내 재배에 적합한 품종이 개발되어 벼 품종육종 및 재배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한국의 농업 노하우를 살려 고급 장립종 시장을 공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어려운 시기에 쌀 수출 확대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이 지난 12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CJ제일제당, 옥천농협,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 등 5개 기관·생산자단체·기업과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남군 제공〉

무안군 주택·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본격화

4년 연속 공모 선정 36억 투입
주택, 연 60만원 전기료 절감
9개 읍면 432개소 사업 추진

무안군이 4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 공공·상업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를 보급하는 공모사업이다.

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서 4년 연속 선정돼 확보된 국비 10억원을 포함 총 36억원을 투입해 9개 읍·면 432개소에 사업을 추진한다.

태양광발전설비(3㎾)가 주택에 설치 완료되면 해당 가구는 연 60만원(월 5만원) 이상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2021~2023년 3년간 9개 읍·면에 1213개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완료해 운영중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무안군 제공〉

“엄니, 고향사랑기금으로 영화 보러 가요”

영암군, 1억 투입 11개 읍·면 어르신 영화 관람 계획

영암군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입한다.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목표액 6억원의 두 배가 넘는 12억3600만원을 모금했다.

모금액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2위였고 답례품으로 영암의 농산물과 소상공인 상품이 3억7800만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용한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천하장사 식사권’, F1자동차경주장의 ‘서킷 체험권’ 답례품도 참신성과 희소성으로 전국의 이목을 끌었다.

올해는 4월 중순부터 실행에 들어갈 ‘엄니, 영암극장 가시게요’가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약 1억원의 고향사랑기금으로 11개 읍·면 어르신 모두 영화 한 편씩 볼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엉덩이 기억상실증 회복 프로그램’은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나이가 들면 엉덩이 근육이 가장 빨리 빠진다는 의료 상식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시종면·서호면에서 4주 동안 120명 어르신에게 건강 처방을 해주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정책을 추진 중인 군은, 올해 고향사랑기금으로 먼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초빙할 방침이다.

한 주에 영암군보건소에 2일, 삼호읍보건지소에 3일 전문의를 배치해 소아청소년 마을주치의 역할을 맡긴다.

군은 1월 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기금사업 발굴 ▲답례품 경쟁력 강화와 신규 발굴 ▲고향사랑기부자 예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4대 추진전략과 15개 세부 추진계획 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전국에서 영암에 고향사랑기부를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그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서 영암군민과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일들에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완도 고금·군외·약산·신지 LPG 배관망 구축 시작

5년간 사업비 139억 투입

완도군이 앞으로 5년간 고금면·군외면·약산면·신지면 등 4개 면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을 구축한다.

완도군과 한국LPG사업관리원은 지난 12일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완도군 4개 면이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추진된다.

이들 지역에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총사업비 139억원을 투입해 LPG 저장 탱크와 공급관, 가스보일러, 가스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올해 고금면(418세대)을 시작으로 군외면(229세대), 약산면(146세대), 신지면(280세대)까지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금면은 내년 준공하고, 군외·약산·신지면은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취사·난방용 연료를 개별적으로 사서 사용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완도군 측은 전망했다.

특히 배관망을 통한 가스 공급으로 기존보다 30~40%의 연료비가 절감되며, 안전하고 편리한 연료 사용 환경이 조성된다.

완도군은 도로를 뚫을 때 공사 당일 되도록 복구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전면 포장하며 주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사업 추진 때 저장 탱크 부지 선정과 도로 굴착 등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게 힘쓰겠다”며 “다양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있도록 하고, 사업 대상지에서 빠진 마을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확대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2021년 군 단위 LPG 배관망 구축망 사업을 마쳤다. 생일 덕우(사업 완료), 소안 횡간, 청산 여서, 군외 사후도 등을 대상으로 LPG 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군(군수 신우철·왼쪽 5번째)이 지난 12일 한국LPG사업관리원과 4개 면 LPG 배관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농무기 사고 다발 해역 5개월간 예방 순찰

목포해양경찰, 목포항·안마도·진도·임자도 선박 안전관리

목포해양경찰이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농무기인 이달부터 7월까지 ‘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5개월간 선박 활동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무기에 시야가 좁아짐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저시정으로 인한 지역 선박사고는 82건 발생했다.

선박별로 보면 어선 53척(65%), 화물선·유조선 9척(11%), 예부선 6척(7%)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운항 부주의 33척(40%), 정비 불량 21척(26%), 기상악화 17척(21%) 등 순이다.

목포해경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 항해 교육과 합동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기상정보를 제공해 적극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또한 낚시어선, 레저활동객을 대상으로 조난사고 때 신고, 위치송신 방법 등을 교육하며 사고 취약선박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목포항과 안마도, 진도, 임자도 인근 농무기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예방 순찰도 강화한다.

신속한 구조태세를 위한 민·관·군 합동 수난대비 훈련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민간해양구조대 간담회, 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회의 등을 열어 비상 연락망을 재정비해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암경찰, 긴급 상황 초기대응 역량 강화

당직자 비상동보장치 경연 개최

영암경찰은 지난 12일 ‘당직자 비상동보장치 경연대회’〈사진〉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경연대회에는 경찰관 10명이 참가했다. 이 대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산불, 이상 동기 범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경찰의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찰은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야간·주말 당직자 비상동보시스템 신속활용 강화계획’을 자체 수립했다.

경연대회 우수 참가자에게는 서장 표창과 포상 휴가를 줬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소년체전·장애인학생체전 함께 응원해요

목포시 5월 개최…시민응원단 690명 모집

목포시가 오는 5월 열리는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 시민응원단 690명을 모집한다.

오는 29일까지 목포에 사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담당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한 뒤 내면 된다.

선발된 시민응원단은 다음 달부터 전국소년체전이 끝날 때까지 약 2개월가량 활동한다.

이 기간 체전 홍보, 대회 분위기 조성, 경기장 환경 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목포시는 경기장 환경 정비와 홍보에 나선 시민응원단에 1365 자원봉사포털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해 줄 계획이다.

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은 오는 5월14일부터 17일까지 17개 종목, 3500여 명이 참여한다.

5월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53회 전국소년체전은 36개 종목 1만8000여 명의 선수들과 임원진이 참가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었다”며 “올해 목포를 주 개최지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